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

성경: 삼하 7:12-14상, 고전 3:9, 엡 3:14-21, 마 13:3-9, 19-23, 계 21:3, 22

- I.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 준다 — 마 16:18, 엡 3:17.
- A.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사실상 여호와께서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서 예표의 방식으로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 있고, 인간적인 것인 사람의 씨가 신성한 것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 B.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유기적이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숨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해야 한다 — 요 6:51, 57, 7:37-39, 20:22.
1.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들이섬으로써 ‘현재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속에서 신진대사의 과정이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다 — 갈 2:20, 고후 2:15, 빌 1:20-21.
 2.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소화와 동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체험함으로 생명 안에서 점진적이고도 내재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 고후 3:18.
 3.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변화이며, 변화가 곧 건축이다 — 비교 계 21:18, 4:3.
- II.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작지, 즉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보배로운 재료들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농장이다 — 고전 3:9.
- A. 성경에 따르면 성장은 건축과 동일하다. 건축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성한 씨가 자랄 때 일어난다 — 요일 3:9, 골 2:19, 엡 4:15-16.
- B. 에베소서 3장 17절이 계시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 C.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로 설명된다.
1. 주님은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토양인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심으로,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며 그들 안에서부터 표현되신다 — 마 13:3.
 2. 씨는 토양에 뿌려져서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란다. 따라서 그 산물은 씨와 토양,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마 13:23.
 3.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 속에 어떤 자양분을 창조하여 두셨다.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인성의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 비교 뱀전 3:4.

4.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에 자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자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 시 78:8, 마 5:3, 8.
 - a.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인 우리의 혼 안에 머문다면, 신성한 씨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자양분이 공급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 엡 3:16-17, 롬 8:6, 딤후전 4:7, 비교 유 19.
 - b. 생명의 씨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어 우리의 완전한 누림이 되시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그분과 협력하여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 마 13:3-9, 19-23.
5.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한 면으로는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의 일, 곧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수행하신다.

III.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시고 우리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함을 계시한다 — 엡 3:14-19.

- A. 우리가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 안에 있지 않고 대체로 겉사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시사한다 — 엡 3:16, 1:19-22, 3:20.
- B.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모든 공간을 점유하기를 갈망하신다.
 1.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카토이케오’라는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처소에 정착하다’ 혹은 ‘거처를 만들다’이며, 이 단어의 접두사 ‘카타’는 ‘아래’를 의미한다 — 엡 3:17상.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을 위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사랑 안에서 터를 잡고 있다 — 엡 3:17하.
 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하게 되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차원은 바로 우주의 차원이다 — 엡 3:18.
 - a.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입방체처럼 삼차원적이어야 하며, 선처럼 일차원적이어서는 안 된다.
 - b. 성막과 성전 모두에서 지성소는 입방체였다 — 출 26:2-8, 왕상 6:20.
 - c. 결국 하나님의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각각 만 이천 스타디온인 영원한 입방체, 곧 지성소일 것이다 — 계 21:16.
 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어 삼일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 엡 3:19-21, 비교 창 24:47, 53, 61-67.

IV.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때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엡 3:17상.

- A.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일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 마 16:18, 엡 2:21-22, 3:17상.
- B.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일해 넣어지셨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 갈 4:19, 골 1:28.
- C. 우리는 한 가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 고후 13:14, 고전 3:9상, 10, 12.
- D.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하고 있는 이는 사실 상 우리가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계신다 — 행 9:15, 고전 14:4하, 고후 3:3-6.
- E.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은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 요 14:20, 15:4상, 요일 4:15.
- F.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인성 안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또한 사람의 요소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다.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건축이다 — 엡 2:21, 4:16.
- G.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반드시 이러한 상호 조성의 일부여야 한다.
 - 1. 우리의 일이 이러한 상호 조성과의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짚과 같다 — 고전 3:12.
 - 2. 우리의 일이 이러한 상호 조성의 일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실 것이다 — 계 21:2, 10-11, 18-21.
- H. 우리가 낱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네 단계로 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리고 그들을 그분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 I.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 골 2:19, 엡 4:15-16, 계 21:10.

V. 결국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성은 연합되고 섞여서 한 실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이다 — 계 21:2, 10.

- A.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을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건축된다 — 계 21:18-21.

- B.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 계 21:3, 22.
1. “주는 사람 안에서 사람은 주 안에서 / 사람 안엔 하나님 사람은 주의 표현”(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 이렇게 상호 거쳐 되네 / 하나님은 사람 내용 되시고 / 사람은 하나님 표현해(영어 가사 직역)) — 영한 동번 찬송가 972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68장) 9절.
 2.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건축되고 함께 섞이고 연합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완결이다.
- C.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조성되어 이루어진 조성체이다 — 계 22:17상, 21:3, 22.
1. 이것은 신성이 인성 안에서 표현되고 인성이 신성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 신성한 영광이 인성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 계 21:11.
 2. 신성과 인성, 이 둘은 상호 거쳐가 된다.
 - a.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분께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
 - b.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분 안에 거한다.
- D.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함으로 산출된 상호 거쳐가 우주의 중심과 실재이다 — 계 21:1-2, 22, 비교 전 1:2.
- E.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의도를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건축하시고 그분의 선민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조성체를 얻으시기 위한 것인데, 이 조성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자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을 위한 상호 거쳐이다. 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의 최종 완결은 영원히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위트니스 리의 묘비문(墓碑文).